

눈 먼 아버지 위해 희생한 소녀 심청의 극진한 효심

도립국악원 목요일예술무대 '심청가 눈대목-애이불비'

전북도립국악원의 목요일예술무대 '여류명창 6인의 심청가 눈대목-애이불비'가 2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현재 전승되고 있는 판소리 중에서, 애조 띤 대목이 가장 많은 심청가를 주 곡으로 한다. 도립국악원 중견 여류명창 6인이 심청가의 수려한 눈대목을 들려준다. 공연은 긴 이야기에 소리·아니리·발림 등의 연기적인 요소와 섬세한 감정 표현을 결합해 제 멋을 드러내는 판소리 무대로 이끌며, 사

실감 넘치게 보여주는 이야기 장면과 내용을 통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극한과 비극, 동정 혹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비장미와 더불어 환희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애이불비는 눈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소녀 심청의 극진한 효성이야기를 총 6개의 눈대목에 담아낸다. 눈대목은 수족이 되어주던 곡씨부인의 죽음으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불쌍한 심봉사의 내용을 담은

'주과포해' 대목, 심봉사의 곤궁함과 가련한 처지가 실감나게 그려지는 '배는 고파' 대목,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 갈 날을 약속하고 홀로 계실 백발 부친을 걱정하는 '눈 어둔 백발부친' 대목, 죽음의 길을 떠나는 느리고 답답한 '범피종류' 대목, 남경선인에게 팔려 인당수에 빠져 죽은 심청을 그리워하며 통곡하는 심봉사의 애처로운 모습을 담아 슬픔의 극치를 표현하는 '타루비 대목', 심청과의 재회 후 개인으로 행복한 결말의 '눈 뜨는 대목'으로 구성된다. /정해은 기자



여류명창 6인이 들려줘
연기·감정 표현 결합
제 멋 드러내는 판소리로
이야기 장면·내용 통해
관객들의 상상력 자극

조선시대의 혁명가 정여립의 손녀 자신의 첫사랑 400년동안 기다리다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작 뮤지컬 '홍도'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조선시대의 혁명가 정여립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 '홍도, 400년 동안 당신을 기다린 여인'이 문을 연다. 뮤지컬 '홍도'는 뮤지컬 '춘향'(2013~2016년)과 뮤지컬 '똥다 심청'(2017년)에 이은 세 번째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작으로,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재)전북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다. 작품은 제3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인 '홍도'를 원작으로 한다. 평등한 세상을 꿈꾸던 조선시대 중기 혁명가 '정여립'의 사상과 삶, 그리고 그에 얽힌 대중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려낸다. 정여립의 손녀이자 배사의 몸으로 자신의 첫사랑을 400년 동안 기다리는 신비로운 여인 '홍도'의 삶과 사랑을 극화했다. '홍도는 과거와 현재, 전주한옥마을과 조선시대 한양 등이 시·공간이 혼재한다. 작품은 이러한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하

기 위해 홀로그램 등 디지털 영상 기법을 무대에 적용한다. 여기에 최첨단 영상기술, 입체음향의 결합, 미니멀 하지만 깊이 있고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한 무대, 여운을 주는 음악 등으로 공연의 색깔을 더하고자 했다. 작품제작에는 총연출 권호성(뮤지컬 블루사이공 연출,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연출, 소리극 서편제 연출 등), 극작 최기우(희곡 상봉, 은행나무꽃, 제8회 작가의 눈 작품상 수상 등), 작곡 양승환(KBS 국악대상 작곡상, 뮤지컬 춘향 등), 음악감독 이슬아, 안무 최병규, 무대미술 이인애, 조명디자이너 김민재, 영상디자이너 김장연, 의상디자이너 박선옥 등이 참여했다. 공연은 4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북예술회관 4층 공연장에서 상설공연(화~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토요일 오후 4시)으로 만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뮤지컬 '홍도' 연습 현장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완주문화재단, 내달 3일까지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지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오는 5월 3일까지 모집한다. 전북도문화관광재단·전주문화재단·익산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은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기획·개발·실행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은 지역문화에 관심이 있고, 지역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문화인력 도전자 중 문화예술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문화예술 창업자로 활동하는 이들이 그 대상이다. /정해은 기자

선발인원은 10명이며, 교육이수 후에는 교육수료증이 발급된다. 우수 수료생들에게는 국외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전체교육과정은 문화예술 기본 소양교육, 아트 잡 매칭데이, 전국통합리더과정 등의 공통교육과 기획실습 중심의 지역특화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완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창업을 주제로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사회적 경제 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 확산 모델 발굴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 김재원·채수빈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김재원과 채수빈이 선정됐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이번 선정배경에 대해 "대중과 함께 하는 전주국제영화제로 도약하고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김재원과 단아한 외모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배우 채수빈을 개막식 사회자로 낙점했다"고 했다. 김재원은 2016년 MBC 드라마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를 통해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최근에는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만능 엔터테이너의 자질을 보여줬다. 채수빈은 최근 MBC 드라마 '역적', KBS 드라마 '최강 배달꾼', MBC 드라마 '로봇이 아니야' 등에서 연달아 주연을 맡으며 다채로운 연기와 청순한 외모로 화제를 모았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사회자로 나서게 된 김재원은 "19년이라는 역사를 이어온 전주국제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다"며 "이제는 명실상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영화제로 우뚝 선 전주국제영화제가 모든 영화인들,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 행복한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채수빈은 "전주는 영화 촬영 때 한동안 머물렀던 곳으로 맑고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지역"이라며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사회를 맡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다. 전주국제영화제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방문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주 고사동 일대 영화의 거리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